지역전략산업의 진단 및 육성을 위한 연구

- 충청북도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hungbuk Province -

배 정 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Abstract

Bea Jeong-Hwan

Since the 1990s,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 a decentralized and upward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regional and local units to enhance their self-motivated innovation capacity. And in the late 1990s, Korean government had begun to lead regions to select their strategic industries that might be intensively developed into a specialized sector. By in the 2002, 9 regions selected thei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on Chungbuk Province that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industry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he strategic industry planning agency development, the technology support projects under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Chungbuk Province has put their investments into bio-industry and information industry which would be the growth-engine for the region.

This paper reviews on regional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and evaluates their effectiveness in Chungbuk Province. And it also trie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governments.

주제어: 전략산업, 지역산업진흥, 지역산업, 연구개발, 지역혁신

Key Words: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Regional Industry, R&D, Regional Innovation

Ⅰ. 서 론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중앙정부도 기존의 중앙집권적 불균형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분권적·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혁신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체제(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도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클러스터 중심(cluster-based) 산업정책이 큰 틀을 이루고 있었으며 지식경제부가 1999년 대구의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시발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지역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의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지역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해 2000년까지는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 산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2002년 9개 지역에 확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중심적 연구 대상지역인 충북지역은 2002년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후발 9개 지역에 속하여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특화센터운영),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전략산업으로 BT와 IT 기술관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2002~2007년에 이르는 1단계 사업기간 동안 국비 총예산(7,407억 원)의 14.1%인 1,042억의 국비를 사업에 투자하였다(충북테크노파크, 2010). 사업 기간 민선3기에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민선4기에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통하여 전략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화의 중심축으로 선정하여 육성하였다. 충북지역의 구체적인 전략산업 분야는 바이오산업, 반도체 산업, 차세대 전지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이다[1].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충북의 지역전략산업의 변화와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와 향후 지역 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더불어 기존 지역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1단계 사업기간 중 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이동통신 산업이 2005년 LG전자 GSM 사업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성장의 둔화와 기 구축된 클러스터가 해체되어 전략산업 중 이동통신 산업을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으로 전환하였음(충북테크노파크, 2010).

Ⅱ. 지역전략산업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전략산업의 개념

흔히 혁심의 개념은 기술변화의 과정(processes of technological change)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변화의 과정은,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그리고 확산(diffusion)이라는 세 가지의 다른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혁신의 개념을 동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혁신이란 기술변화과정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전국의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을 가리킨다. 즉, 해당지역이 산업입지요인 측면에서 최적입지를 시현하고 있거나 향후 시현할 가능성이 큰 특정산업으로서 지역의 산업발전역량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개념은 정책적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공통적인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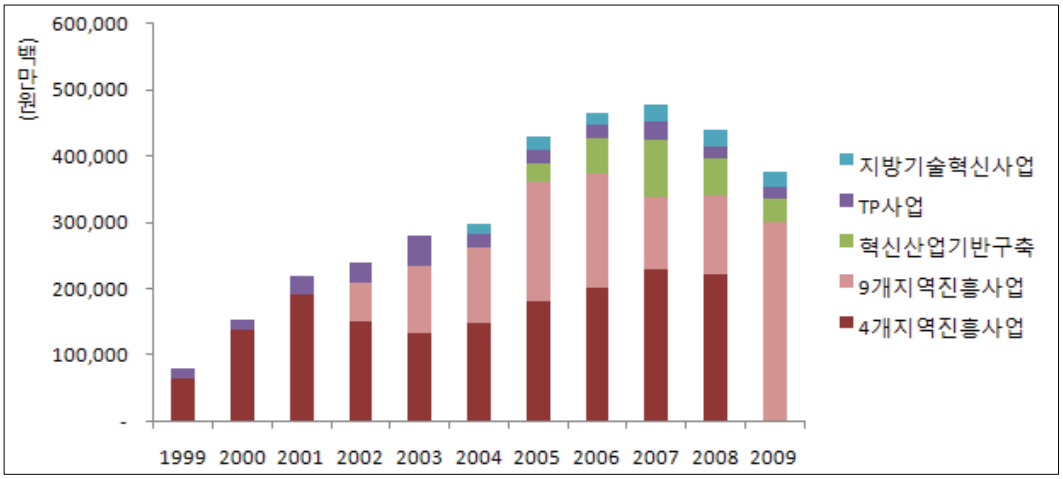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 의미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지역발전전략 등 핵심적 역할이 되며, 지역에 토대를 둔 지식, 경험, 자원 등이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지역전략산업정책의 현황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된 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발전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 및 사업화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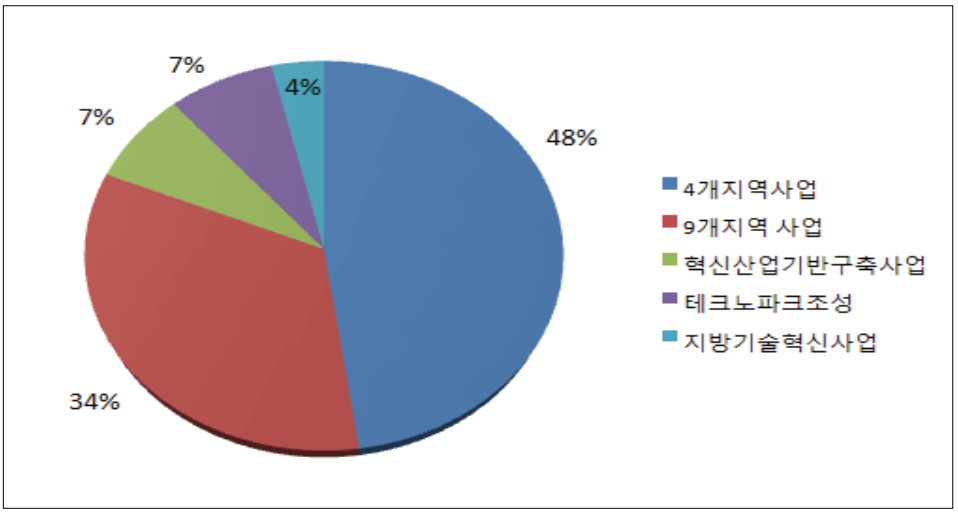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개 지역과 9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크게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분리되며 지역산업진흥사업에는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는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누적 예산은 3조 4,402억 원이며 예산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예산변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의 변화를 보면 테크노파크조성사업과 4+9개 지역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은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1999년 795억 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775억 원이 최대 예산규모였으며 2009년에는 3,756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사업별 예산비중

사업별로 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예산 3조 4,574억 원 48%인 1조 6,519억 원이 4개 지역진흥사업에 소요되었고 34%인 1조 1,642억 원이 9개 지역 진흥사업에 투

자되었으며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 2,594억 원,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2,595억 원이 투자되어 각각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기술혁신사업에는 1,26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비중을 가진 지역진흥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4개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평균 4,129억 원이, 9개 지역의 경우 1,293억 원이 투자되었다.

하지만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사업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비 및 민간투자비와 매칭 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약 2배로 증가한 6조 5,064억 원 규모이며 국비가 총사업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와 매칭 되는 누적 지방비 투자는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민간투자비는 1조 4,659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총사업비 중 국비의 비중은 2003년까지는 50% 미만이었으나 2007년에는 61%까지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55%까지 하락하였다.

<표 1>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3	2006	2009	누적사업비
계	344,895	662,100	797,956	683,019	6,506,484
국비	152,400 (44%)	277,500 (42%)	464,700 (58%)	375,591 (55%)	3,440,292 (53%)
지방비	80,389 (23%)	150,477 (23%)	188,334 (24%)	225,115 (33%)	1,600,297 (25%)
민자	112,106 (33%)	234,123 (35%)	144,922 (18%)	82,313 (12%)	1,465,895 (23%)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2010년 예산으로 4+9지역진흥사업은 3,281억 원이 요청되었으며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다소 줄어든 129억 원이, 지방기술혁신사업은 195억 원이 요청됨.
지방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2008년부터 신규사업지정이 없어 2009년으로 사업이 종료됨.

3. 지역전략산업 변화 및 성과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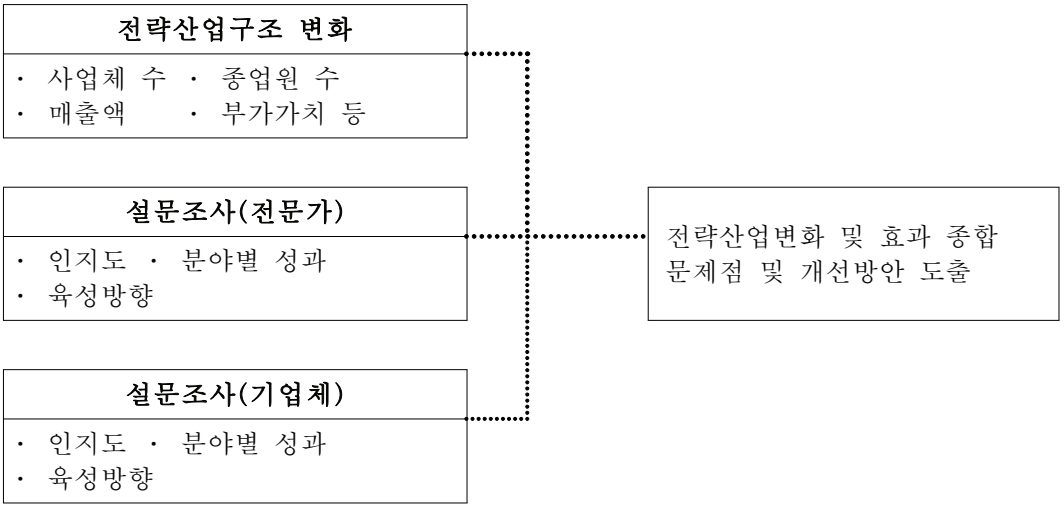
1) 충북 전략산업 변화 분석 및 범위

본 연구는 충북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는 한편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추이 분석을 통하여 충북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충북경제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2001년 이후 전략산업의 성장을 사업체수, 종업원 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전략산업과 관련된 전문가와 기업체 관련자들에게 현재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의 목적인 충북의 지역전략산업의 변화와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과 지역전략산업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림 3> 연구 분석의 틀

Ⅲ. 충북전략산업 변화 및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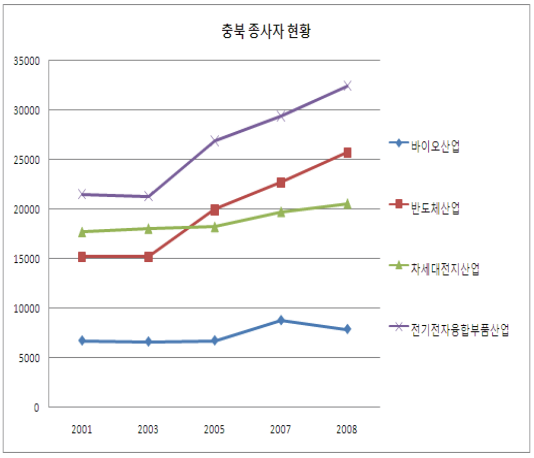
1. 충북전략산업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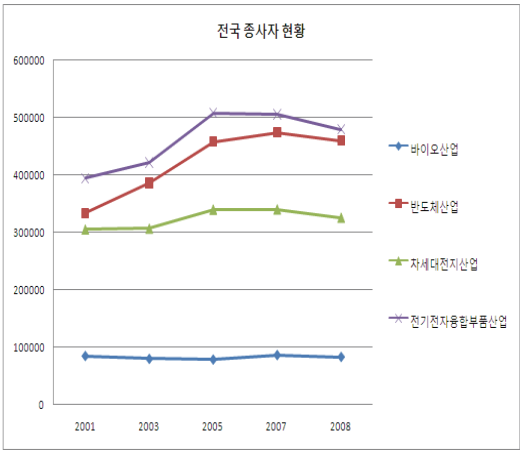
1) 고용부문

충북의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은 2003년 이후부터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바이오산업은 2005년 이후에 증가 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은 2003년 이후 증

가하다가 2007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임.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전략산업별 종사자 현황(충북 및 전국)

충북은 2005년부터 전국적인 고용구조와 동일하게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지역고용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세대전지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고용성장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차세대전지산업, 반도체산업이 고용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충북지역과 달리 2005년 이후부터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고용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 사업체 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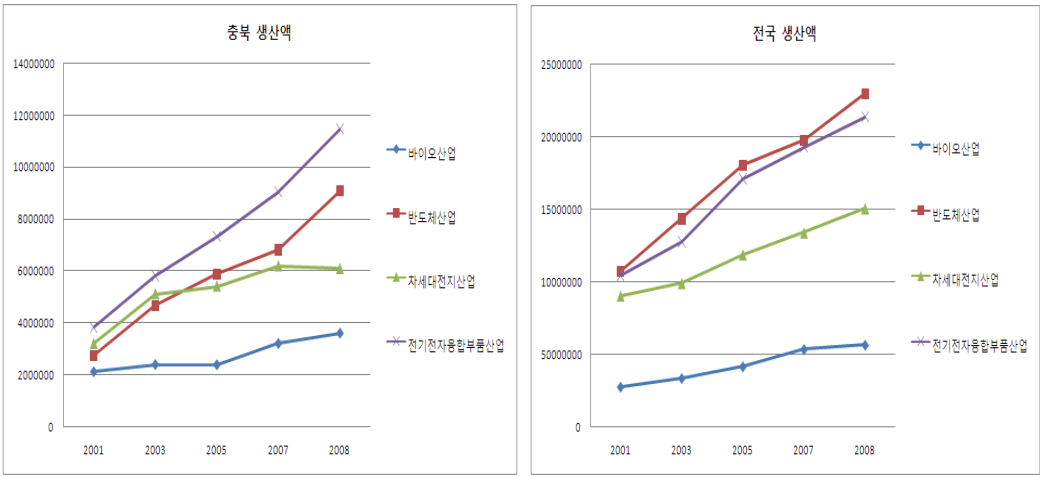
충북 전략산업의 사업체 수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감소추세 양상을 보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사업체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감소추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충북의 전략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인 양상을 그대로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충북 전략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반도체산업이 사업체 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감소추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5> 전략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충북 및 전국)

3) 생산 부문

충북 유망산업의 생산매출액은 종사자 수가 2008년 이후 감소추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인 충북 유망산업의 생산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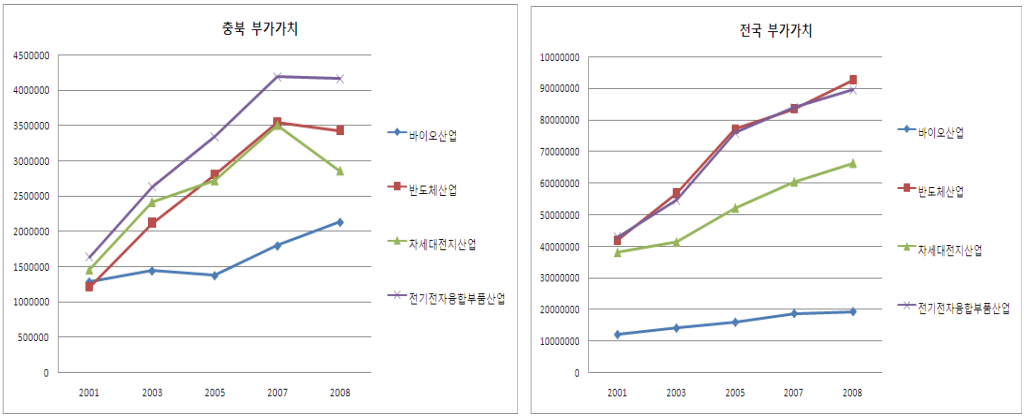


<그림 6> 전략산업별 생산 부문 현황(충북 및 전국)

충북 전략산업의 생산매출액은 종사자 수가 2008년 이후 감소추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국적인 충북 전략산업의 생산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4) 부가가치 부문

충북 전략산업의 부가가치 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바이오산업을 제외하고는 2008년에 감소양상을 보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충북 전략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7> 전략산업별 부가가치 현황(충북 및 전국)

충북 전략산업 중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 액은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IT관련 산업인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과 반도체산업의 부가가치는 2008년에 성장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차세대전지산업은 2008년에 부가가치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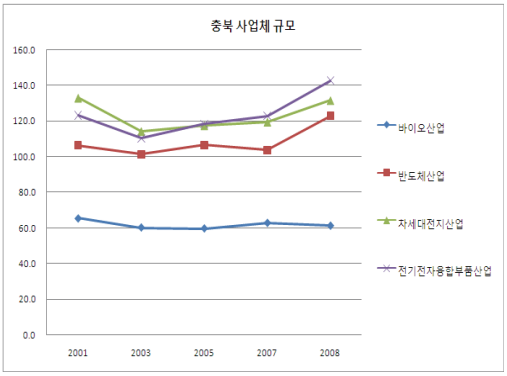
전국적으로는 충북 전략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충북 IT부문의 2008년도 부가가치 감소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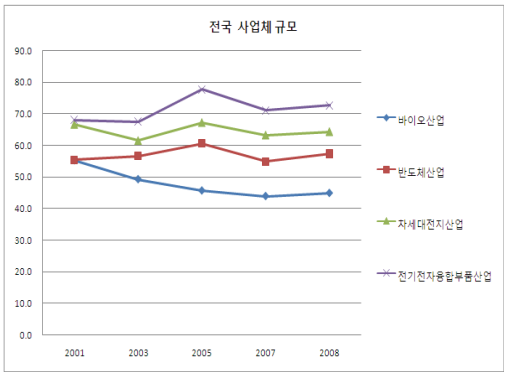
5) 사업체 규모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충북 전략산업의 사업체 규모는 2003년 이후부터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는 전국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인 사업체 규모는 각 산업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였다.

충북 바이오산업의 사업체 규모는 일정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산업의 사업체 규모는 2003년 이후부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2008년의 규모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다.

전국적인 사업체 규모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나 바이오산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림 8> 전략산업별 사업체 규모 현황(충북 및 전국)

2. 충북 전략산업진흥사업 설문조사

1) 일반 설문분석 결과

충북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전문가로 등록되어 자문 및 연구수행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총 55명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국가 연구사업 참여를 경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북의 4대 전략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우선 충북전략산업육성분야 및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빈도가 51명으로 나타나 전략산업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응답에서 잘 알고 있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로 조사대상자들의 전문적인 응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 설문은 충북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0년 8월 한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 기업체는 모두 130업체였으며 응답한 기업은 116개 기업체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군 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천시, 청주시, 음성군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분석에는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표 2> 충북전략산업육성분야 및 정책 인지도

구 분	전문가		기업체 응답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3	2.4
모른다	4	7.3	13	10.6
보통	7	12.7	48	39.0
잘 알고 있다	29	52.7	48	39.0
매우 잘 알고 있다	15	27.3	11	8.9
합 계	55	100	123	100

충북의 전략산업 중 현재 가장 육성이 잘 된 분야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응답은 반도체 산업이 가장 많은 44.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바이오산업으로 38.5%로 뒤를 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충북도가 바이오충북이래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최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 응답자의 응답도 전문가들의 응답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이 전문가 응답보다 높은 50.0%를 보였다.

<표 3> 전략산업 중 가장 잘 육성되고 있는 분야

구 분	전문가		기업체 응답자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바이오 산업	20	38.5	45	37.5
반도체 산업	23	44.2	60	50.0
차세대전지 산업	5	9.6	8	6.7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4	7.7	6	5.0
합계	52	100.0	1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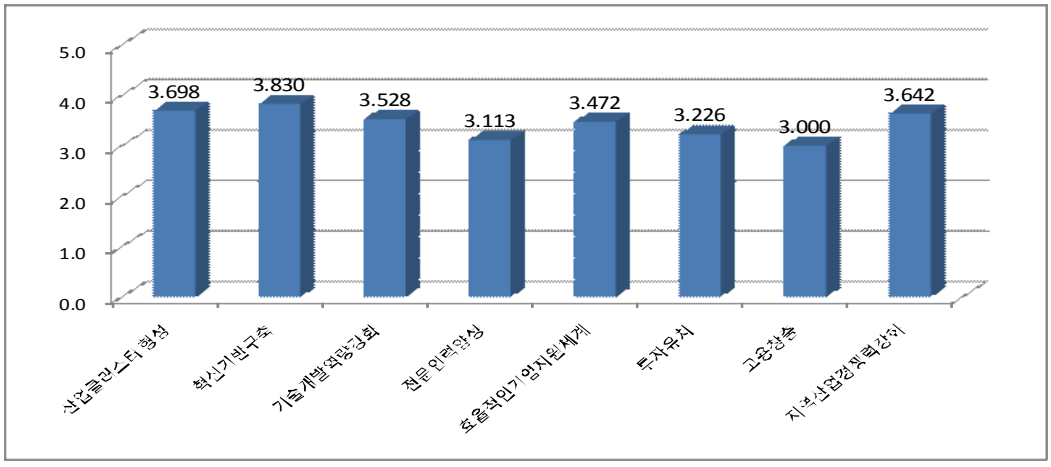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분야별 기여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53명의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혁신기반구축과 관련된 테크노파크 및 센터, 단지조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업클러스터형성, 지역산업경쟁력강화에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표 4>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분야별 기여도 평가

일표본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산업클러스터 형성	53	3.698	0.799	3.478	3.918
혁신기반구축	53	3.830	0.700	3.637	4.023
기술개발역량강화	53	3.528	0.639	3.352	3.704
전문인력양성	53	3.113	0.670	2.929	3.298
효율적인기업지원체계	53	3.472	0.749	3.265	3.678
투자유치	53	3.226	0.750	3.020	3.433
고용창출	53	3.000	0.809	2.777	3.223
지역산업경쟁력강화	53	3.642	0.736	3.439	3.844

전문가들이 본 기여도가 적은 부분은 고용창출 분야와 전문 인력 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고용과 관련된 경제상황인식이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될 수 도 있으나 향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고용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림 9>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분야별 기여도 평가(평균비교)



충북전략산업 육성 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조직 및 역할확대 등과 관련된 핵심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지를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으로 이루어 졌으며 응답결과는 충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원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역할이 크다고 응

답하였다. 기업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19.0%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대학의 역할은 상기 지원조직,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응답비율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역의 상황과 현재까지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테크노파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립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산업생산 및 기술수준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조직

구 분	전문가		기업체 응답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지원기관(테크노파크 등)	44	41.9	112	46.9
지방자치단체	20	19.0	48	20.1
중앙정부	8	7.6	11	4.6
지역대학	7	6.7	5	2.1
기 업	23	21.9	44	18.4
관련협회	1	1.0	8	3.3
정부 출연연구원	1	1.0	6	2.5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1	1.0	4	1.7
합 계	105	100.0	239	100.0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는 전문가 그룹은 매우 필요하다 46.3%, 필요하다 35.2% 등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동시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있었으며, 기업체 응답에서는 필요하다가 매우 필요하다보다 조금 높은 응답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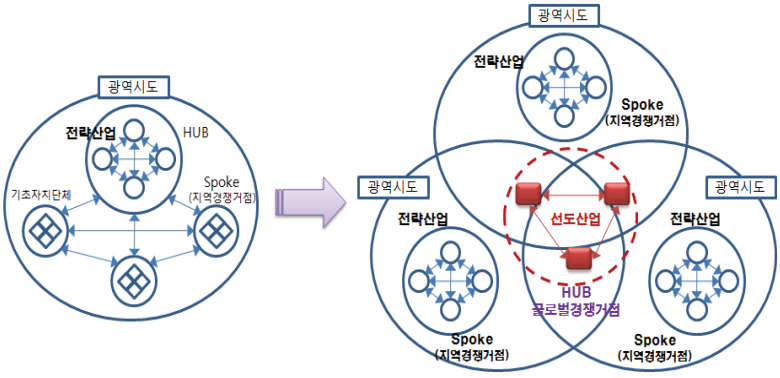
<표 6>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포괄패키지 지원체계의 필요성

구 분	전문가		기업체 응답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불필요	2	3.7	1	0.8
불필요	4	7.4	2	1.7
보통	4	7.4	11	9.1
필요	19	35.2	54	44.6
매우 필요	25	46.3	53	43.8
합계	54	100.0	121	100.0

Ⅳ.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 이명박 정부는 자율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 R&D 및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에 기초한 지역 특성화 및 지역별 고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별 특화 유망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신 성장 동력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0> 지역산업발전체계의 변화

따라서 지역의 성장 동력과 지역의 맞춤형 R&D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도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1. R&D 지원체계의 합리화

현재 지역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R&D 지원체계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부처도 독자적인 연구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복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지방차원의 R&D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R&D 및 혁신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혁신 거점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관은 테크노파크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R&D 지원강화

현재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중앙부처는 지경부와 교과부라고 할 수 있다. 지경부는 TP, 특화센터 등의 설립지원 등을 통해 기업체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교과부는 산학연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향하였고 대학중심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략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역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및 지역전략산업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정부 및 지역기업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분류

구분	시도단위			광역단위
	기초연구	특화산업	전략산업	광역선도사업
H/W	지방과학연구단지	RIC, 지자체연구소	TP, 특화센터	TP, 특화센터
S/W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연고산업(공모)	전략산업 (기획, 공모)	선도산업(공모)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10.

또한 지역산업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과 공모, 사업집행의 시기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조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권한의 강화는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이라는 중앙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육성 강화

지역의 전략산업의 잠재적 성장 기반을 육성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간의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육성된 인재의 외부 유출, 육성된 인재의 기업체 취업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학연관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중심 대학의 육성 및 산학협력 연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의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광역경제권 인재육성 사업 등이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데 현재 기업체의 요구수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 지원이 강한 측면이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들과 현재 혁신 거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광역권 선도 산업별로 지역에 1~2개 대학을 지정, 센터 당 50억 원 내외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질적인 클러스터 체계 확립 및 연계강화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선도 산업과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경제권별, 지역별, 혁신주체별 연계관계가 정책시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주체별 연계는 산업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지원혁신주체와 각 산업의 기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현재 조성계획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연구개발특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의 연계를 통한 Hub-Spoke 체계는 물론 지역간 전후방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지역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광역연계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대학, 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테크노파크 등 혁신거점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산학연 협력 활동에 따른 공동이익의 보장

지역의 전략산업발전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산학연관협력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미흡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 산학연 협력활동에 참여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공동이익이 적다는 것이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출연(연)이나 대학 등의 경우 산학연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 자체보다는 그 연구자금 등의 획득이 각 참여주체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활동 자체의 인센티브가 없다. 직업 산학연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출연(연)의 연구원이나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협력활동은 부가적인 노력에 비해 인센티브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PBS시스템이 적용되는 출연(연) 연구원이나 별도의 업적평가를 받는 대학교수의 경우 산학연 협력활동에 열심일 경우 오히려 평가를 낮게 받아 결국 산학연 협력활동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 질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참여주체들에게 공동 활동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의 배려를 통해 실질적으로 마련된 산학연 협력체계는 기업, 출연(연), 대학, 혁신기관 등 참여기관에게 부여되는 이익은 물론이고 실제 활동을 수행할 내부 인력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동시에 마련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6. 지역적 중복성 배제 및 신 성장 동력화 추진

현재 선도 산업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육성사업이 진행 중임. 그러나 지역적으로 세부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적인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를 광역권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도 산업이 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투자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선도산업지원단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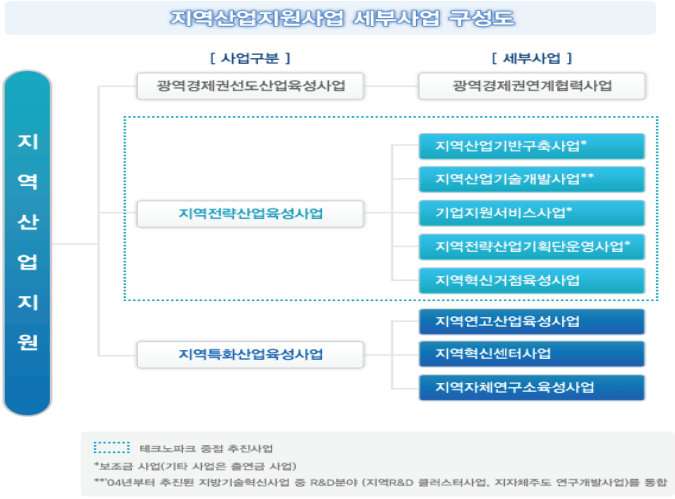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광역선도산업지원단을 지역개발청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크노파크를 각 지역의 지부로 하여 역할을 독립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선도 산업을 신 성장 동력화 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화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며 선도 산업의 육성이 광역권내 경제 및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기업지원 일괄 패키지화를 위한 혁신기관 역량 강화

지역의 전략산업은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한 환경에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혁신기관에 이러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혁신기관의 역량은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지역산업지원사업 세부산업 구성도

또한 지역산업지원의 일괄 패키지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지원체계에 있어 테크노파크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내부구성원들의 명확한 이해와 함께 기존 구성원들의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협력과 연대는 기존에 별도로 취급되어온 경향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과 관계된 구성원들과 기존 테크노파크 사업의 구성원들의 협력적 운영방식의 개선, 그리고 상호 노하우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술 거점기관일 뿐 아니라 '기업 밀착형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식경제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테크노파크 전 구성원이 활동역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경세 외. (2005). 「대전지역 전략산업 IT분과 육성계획」.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유경식. (2007). 「전략산업의 적합성 분석 : 특허지수와 다이아몬드 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대학원.

이현길. (2004). 지방의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195: 91-95.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9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평가보고서.

최영출. (2006). 한국, 영국 및 아일랜드의 지역혁신체제의 네트워크 작동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0(2): 27-54.

최재헌. (2004). 「지역분석의 기초」. 서울: 두솔.

최창현.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단체간 연결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157-181.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2008). 「광역경제권 산업지원 인프라 연계효율화 방안」.

_____. (2009). 「충북전략산업 진단 및 성장성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한 과학기술분야간 상관관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분석」. 서울: KISTEP.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Baran, Paul. (1964).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 Network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Achibugi, D. (1992). Patenting as Indicato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 Review, *Science and Public Policy*. 19: 357-368.

Nohria, N. &C. Garcia-pont. (1991). Global Strategic Linkages and Industry Struct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105-124.

Penan, H. (1996). R&D Strategy in a Techno-economic Network: Alzheimer's Disease Therapeutic Strategies, *Research Policy*. 25(3): 337-358.

Porter, M. E,. (1985). Competitive Advantage :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The Free Press*, New York.

RIBA. (2005). RIBA Constructive Change : A Strategic Industry Study into The Future of The Architects's Profession.

접수일(2010년 06월 15일)
수정일자(2010년 07월 30일)
게재확정일(2010년 08월 25일)